칠레의 농업 현황

강 형 준 *

1. 칠레의 일반현황

1.1. 개황[1)]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이하 칠레)은 남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태평양과 안데스산맥 사이의 남북으로 기다랗게 뻗은 영토를 가졌으며, 국토 면적은 약 75만 7,000km^2 정도이다. 북쪽으로는 페루,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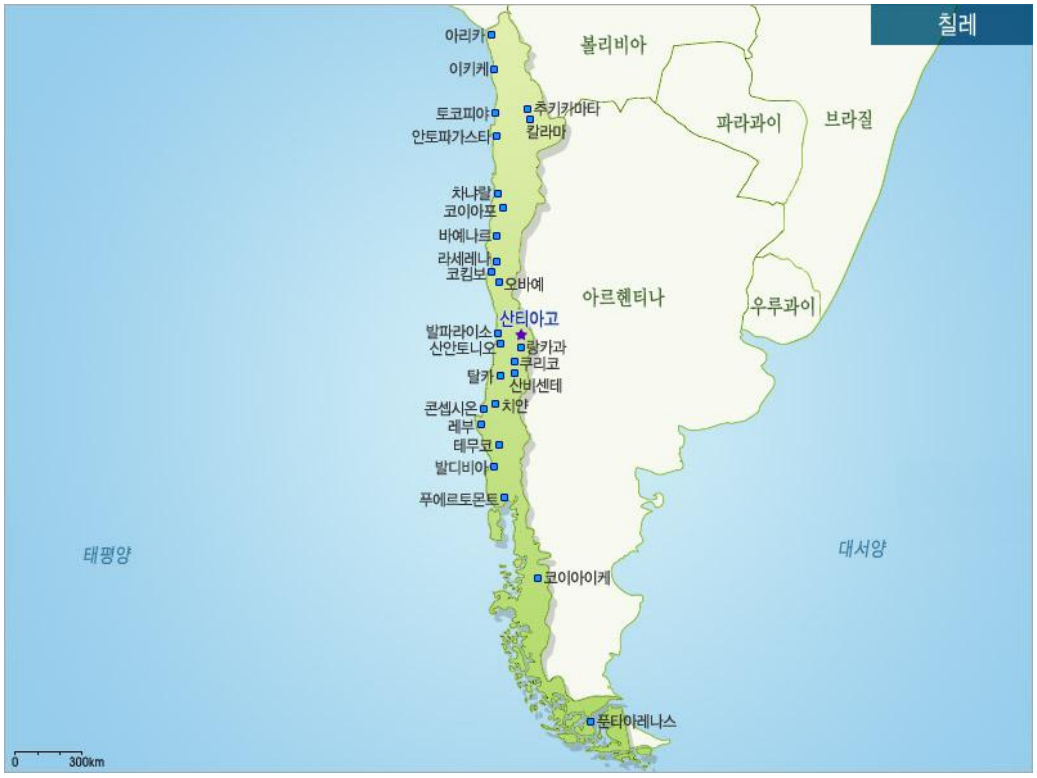
또한 동쪽의 안데스산맥과 더불어,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 남부의 파타고니아 및 서부 해안을 형성하고 있는 태평양 등 사방이 막힌 다소 고립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폭은 대략 175km 정도인 데 반해 길이는 약 4,300km나 되는 특이한 국토 형태 덕에 매우 다양한 기후를 지니고 있다.

칠레는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한랭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칠레의 북부지역(남위 17° -32°)은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를 지녀 연평균 기온 16도를 유지하지만, 남부지역(남위 38° -54°)은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다습하다(연평균 기온 9도). 또한, 중부지역(남위 32° -38°)은 건기, 우기로 나뉘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 여름철에 따뜻하고 겨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추운 편이다.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칠레 인구의 대략 3/4은 중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94hyungjun@naver.com)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B9%A0%EB%A0%88, 검색일: 2019.10.29.)와 한국농어촌공사(2015. p. 47-5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1> 칠레 지도



자료: 외교부(2018, p. 3).

1.2. 정치 및 사회 동향[2)]

칠레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 1818년 2월 12일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칠레는 1881년 아르헨티나와 조약을 맺어 마젤란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약 4년간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해 북부 아타카마 사막을 병합했다. 이후 1891년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배를 놓고 내전이 일어나고 1924년 루이스 알타미라노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20세기 초까지 칠레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1932년 헌정질서가 복구되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급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중대한 개혁은 없었고, 이후 기독교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교육, 주택, 농지개혁, 농업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등 광범위한 정책을 수행했다. 1970년 살바도르

2) 김진오·김효은(2019, p. 3-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아옌데는 민간 기업과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농지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1973년에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정권을 탈취한 피노체트 장군은 4두 체제의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16년간 군부독재를 이어나갔으나 이후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압력을 받아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물러나고 마침내 칠레는 문민정부로 복귀하게 되었다.

칠레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자국의 정치 및 사회문제와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연평균 5~6%의 매우 건실한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바첼렛 정부 집권 2기(2014년~2018년) 동안 저성장과 고환율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구리가격 하락과 바첼렛 정부가 추진한 세제 및 노동 개혁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칠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주저앉았다. 이후, 집권 1기(2010년~2014년)에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는 피네라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국민들은 다시금 성장 동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칠레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구의 13%가 여전히 빈곤하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칠레의 지니계수는 2011년 0.471, 2013년 0.465, 2015년 0.454, 2017년 0.46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니계수 개선율[3]은 2015년 기준 4.83%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율의 경우, 칠레 사회개발부가 실시한 사회경제수준조사(CASEN)에 따르면 칠레의 빈곤인구는 2006년 16.5%에서 2015년 8.1%로, 극빈곤인구는 2006년 12.6%에서 2015년 3.5%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를 세전 지니계수로 나눈 값으로 조세제도 등의 재정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임.

<표 1> 칠레 주요경제지표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p
명목GDP (10억 US$)	243.9	250.3	277.6	298.2	300.9
1인당 GDP (US$ at PPP)	22,776	23,499	24,686	25,967	27,057
GDP성장률 (%)	2.3	1.6	1.5	4.0	3.2
실업률 (%)	6.3	6.5	6.6	6.9	6.4
무역수지 (100만 US$)	3,427	4,863	7,359	4,668	4,293
경상수지 (100만 US$)	−5,648	−3,960	−5,964	−9,158	−8,364
물가 상승률 (%)	4.4	2.7	2.3	2.1	2.7
국가채무 (GDP에서의 비중)	17.3	21.0	24.5	26.1	26.4
금리 (%)	3.1	3.5	2.7	2.5	3.4
환율 (페소/US$)	707.34	667.29	615.22	695.69	676.86

주: p는 전망치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2019, p. 11).

오늘날의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 등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아메리카 3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빈곤율 및 부패 정도를 지녔으며 인간개발지수(HDI)[4]도, 2017년 기준 0.843으로 세계 38위, 남아메리카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반면에 칠레는 경제와 사회 양면에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경기변동에 취약한 광물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의 탈피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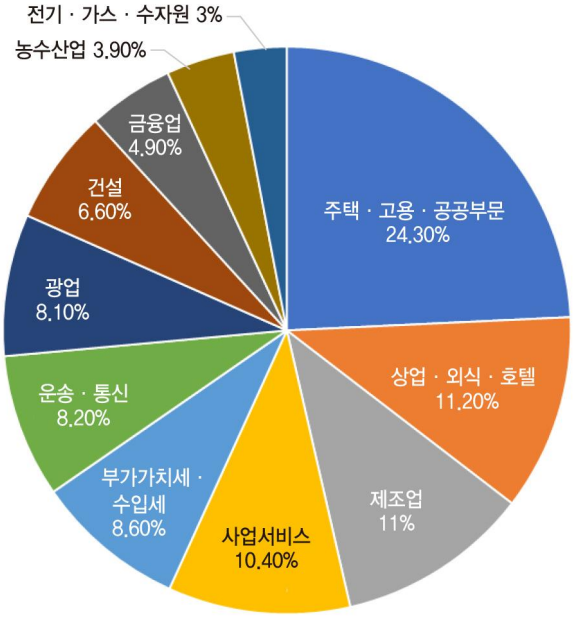
4) UN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문자 해독률, 평균 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조사해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로서 (기대수명지수*소득지수*교육지수)^(1/3)의 공식을 통해 산출됨.

1.3. 주요 산업동향

칠레는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서 국가 경제에서의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여 전체 GDP의 8%,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5)]

2016년 칠레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중 주택·고용·공공부문의 비중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업·외식·호텔 11.2%, 제조업 11%, 사업서비스 10.4%, 부가가치세·수입세 8.6%, 운송·통신 8.2%, 광업 8.1%, 건설 6.6%, 금융업 4.9%, 농수산업 3.9%, 전기·가스·수자원 3% 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중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로 이는 제조업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건설과 금융업, 농수산업 등 많은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칠레의 산업구조(2016)



자료: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19.10.29.).

5) 칠레 광업 수출액 중 구리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92%에 달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구리의 비중은 2003년 36.3%에서 2017년 50%로 증가하였음(외교부, 2018. p. 65).

2. 칠레의 농업 현황

2.1. 일반현황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다르게 칠레의 농촌인구는 2000년 약 214만 명에서 2018년 233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촌인구 성장률 또한 -0.92%에서 0.80%로 상승하였다. 반면, 농촌인구 비중은 2000년 13.93%에서 2018년 12.44%로 감소하였다. 국토면적에서 칠레의 농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32%에서 2016년 21.17%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7.5%에서 12.7%로 감소하였다.[6] 한편, 농업 GDP는 2000년 41억 8,000만 달러에서 2018년 10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38%에서 3.64%로 감소하였다.

<표 2> 칠레 농업 일반 현황

지표	2000	2010	2012	2014	2016	2018
농촌인구 (만 명)	214	221	223	225	229	233
농촌인구 성장률 (연%)	−0.92	0.60	0.52	0.61	0.83	0.80
농촌인구 비중 (%)	13.93	12.93	12.81	12.70	12.58	12.44
농지면적 (천km^2)	151.10	157.43	157.55	157.61	157.42	−
농지면적 비중 (국토면적 중 %)	20.32	21.17	21.19	21.20	21.17	−
경지면적 (천km^2)	17.50	12.71	12.83	12.89	12.70	−
경지면적 비중 (국토면적 중 %)	2.35	1.71	1.73	1.73	1.71	−
국토면적 (천km^2)	743.5	743.5	743.5	743.5	743.5	743.5
농업 GDP (십억 US$)	4.18	7.90	8.83	9.72	10.00	10.90
농업 GDP 비중 (%)	5.38	3.62	3.30	3.73	3.99	3.64
고용에서의 농업 비중 (%)	14.44	10.60	9.98	9.40	9.48	9.15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0. 28).

칠레는 2007년 기준[7] 301,376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농규모 10ha 미만의 소농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영농규모 20ha 미만 농가는 전체의 73.4%에 달하며 20ha에서 100ha 사이 농가는 19%이고, 100ha보다 큰 농가는 7.6%

6) 경지면적(arable land)은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은 영구경작지(permanent cropland) 및 영구목초지(permanent pastrues)까지 포함하는 개념임(WIKIPEDIA, 검색일: 2019.12.20).

7) 2007년에 실시된 국가농림축수산업총조사(VII National Agricultural, Livestock, and Forestry Census) 이후 칠레 통계청과 농림정책연구소는 2020년에 재조사를 실시해 규모 및 지역별 농가 특성에 관한 정보를 최신화할 예정임.

이다. 반면, 1,000ha 이상의 대농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농지 소유 정도는 1.1%에 불과한 대농이 전체 농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농가 경영 구조는 칠레의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3> 칠레 영농규모 별 농가 분포 (2007년)

영농규모(ha)	농가	비율(%)	누적비율
0	1,824	0.6	0.6
0.1 - 4.9	125,334	41.6	42.2
5 - 9.9	48,711	16.2	58.4
10 - 19.9	45,338	15.0	73.4
20 - 49.9	40,275	13.4	86.8
50 - 99.9	16,972	5.6	92.4
100 - 499.9	16,741	5.6	98.0
500 - 999.9	2,722	0.9	98.9
1000 이상	3,459	1.1	100.0
합계	301,376	100.0	-

자료: ODEPA(PANORAMA DE LA AGRICULTURA CHILENA 2019, p. 27).

2.2. 생산 및 소비 현황

2.2.1. 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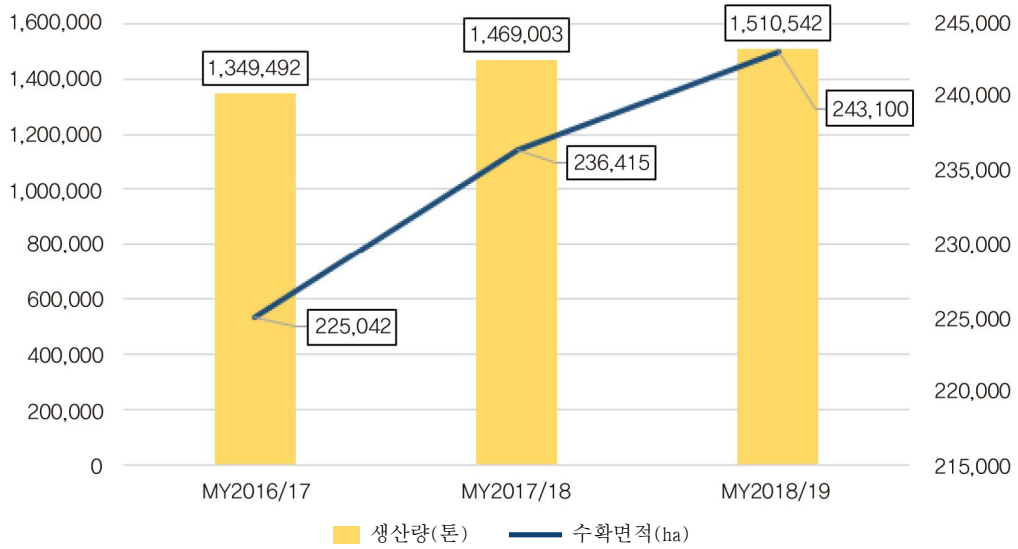
국가 차원에서 칠레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은 밀과 옥수수, 귀리 등으로 전체 농경지의 75%를 차지하며 대부분 칠레의 남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밀과 옥수수는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높은 작물에 속한다. 밀은 칠레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로서 2017/18년도[8] 칠레 밀 생산량은 146만 9,003톤으로 2016/17년도 대비 8.8% 가량 상승하였다. 생산량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로 인한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19년 밀 생산량은[9] 151만 542톤, 경지면적 24만 3,1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ha당 평균적으로 6.2톤의

8) 2017/18년도(Marketing Year 2017/18)는 2017/18 유통연도를 의미하며, 콩과 옥수수의 유통연도는 2017년 9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인 2018년 8월 31일까지에 해당됨.
9) 모든 공식적인 밀 생산량 추정치는 2007년에 실시한 국가농림축산어업총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음 2019-2020년에 실시될 다음 총조사에 기반하여 공식적인 밀 생산량 추정치는 최신화될 것임.

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이변과 병해충 등으로 인한 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재배면적과 수확면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20년 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플라스틱 곡물 포대의 사용증가로 인해 밀 생산량은 2.6% 증가한 1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국내 밀 소비량이 국내 밀 생산량을 상회하는 밀 순수입국이다. 밀 소비량은 연평균 1%씩 증가하는데 이는 칠레의 인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밀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지만, 칠레는 여전히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빵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연간 소비량)이며 1인당 연간 96kg 가까이 소비한다.

<그림 3> 칠레 밀 수확면적 및 생산량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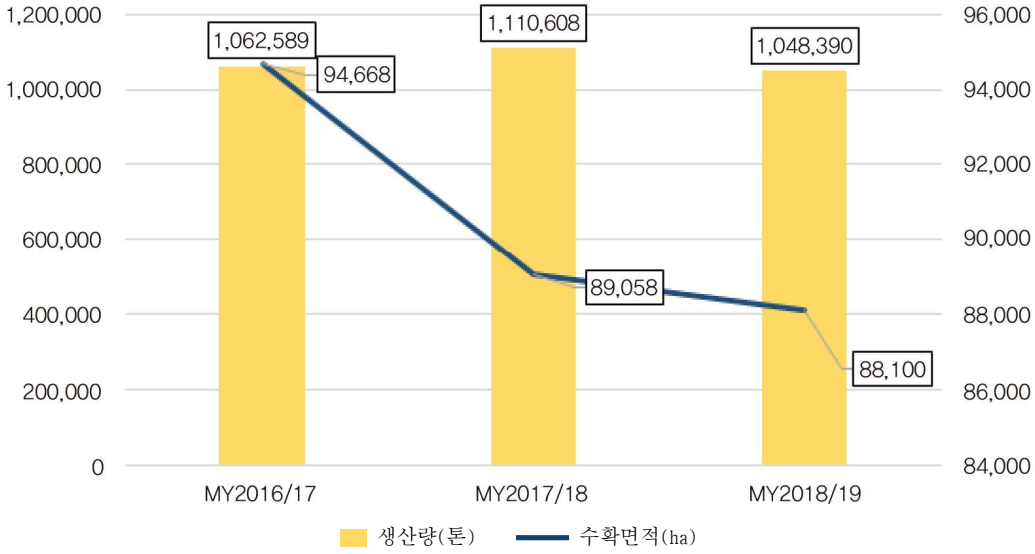
칠레 통계청에 따르면, 옥수수 수확면적은 2016/17년 9만 4,668ha에서 2017/18년 8만 9,058ha로 감소하였다(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 그러나 옥수수의 평균 산출량(단수)이 11%가량 증가한 덕분에(2017/18년 12.5톤), 총생산량은 같은 기간 106만 2,589톤에서 111만 608톤으로 증가하였다. 2018/19년 옥수수 생산량은 그해 매우 더웠던 여름철 날씨와 관개용수의 사용 가능성 감소로 인하여 2017/18년 대비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칠레 밀과 옥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구분	2016/17	2017/18	2018/19p
밀	생산량(톤)	1,349,492	1,469,003	1,510,542
	수확면적(Ha)	225,042	236,415	243,100
옥수수	생산량(톤)	1,062,589	1,110,608	1,048,390
	수확면적(Ha)	94,668	89,058	88,100

주: p 추정치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3-7).

<그림 4> 칠레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7).

칠레의 옥수수 소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소비량 중 90%는 가금육과 연어,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0%만이 식량과 종자용으로 소비되는 실정이다. 칠레는 가금육과 돼지고기 생산 등 축산업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옥수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칠레 사료생산업체들은 해외 수입을 통해 옥수수를 충당하고 있다.

2.2.2. 과실류

칠레 농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칠레 내 과실류 재배면적은 2008년 24만 9,544ha에서 2018년 32만 1,590ha로 10년 동안 28.9% 가까이 증가하였다. 품목별 과실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포도가 칠레 내 전체 과실류 재배면적 중 14.9%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호두(11.5%)와 사과(10.6%), 체리(9.4%), 아보카도(9%) 순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2018/19년도 포도 수확면적은 미국시장에서 페루산 포도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2017/18년도 대비 0.2%가량 감소한 4만 5,900ha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에는 총 1만 6,300개의 포도 과수원이 있으며, 과수원 규모는 중소과수원이 대부분이다. 재배면적이 5ha 미만인 과수원이 전체과수원 중 85%에 달하며, 전체 재배면적 중 73%를 차지한다. 2018/19년 칠레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7만 4,6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18년도 여름의 심각한 더위로 인한 산출량 감소 및 특히 코피아포 계곡(Copiapó valley) 북부에 위치한 주요 포도 생산지 주변의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칠레는 포도 생산량 중 80%를 수출하며 남은 20%를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2018/19년 칠레 내 포도 소비량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18만 4,900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8/19년도 칠레 내 사과 생산량은 농업용수 부족 및 이상기온으로 인해 2017/18년도 대비 5% 감소한 125만 톤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은 3만 4,427ha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2%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남반구에 위치한 수출국들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이윤 감소, 소비자들의 새로운 사과 품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칠레 사과농가들의 체리나 호두같이 상대적으로 더욱 수익성이 높은 대체작물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2018/19년도 칠레의 사과 소비량은 생산량의 19%에 이르는 24만 톤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생산량 중 23%에 해당하는 28만 6,000톤은 가공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호두는 칠레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 작물 중 하나로서 칠레 내 호두 재배면적 중 37%는 산티아고 수도주(Santiago Metropolitan Region)에 위치하고 있다. 2019/20년 호두 재배면적은 4만 5,0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호두 생산량은 산티아고 수도주 내 가뭄 및 봄철 추위 등 불리한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2018/19 대비 3.3% 증가한 15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호두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 중 단지 2%에 불과하다. 칠레 사람들은 호두를 주로 간식으로 섭취하며, 제과업체는 초콜릿과 패스트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

한편 체리는 2017/18년 최적의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하였으나, 2018/19년도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0만 1,000만 톤이 생산되었다. 2019/20년도 체리

생산량은 수확기(11월 및 12월) 예상치 못한 강우나 한파 등이 없는 정상적인 기후조건 가정하에서 23만 1,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의 체리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 중 8%밖에 되지 않으며, 2%는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2019/20년도 체리 소비량은 칠레 소비자들의 신선체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만 8,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칠레의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구분	2016/17	2017/18	2018/19p
포도	생산량(톤)	916,956	915,228	874,600
	수확면적(ha)	46,100	46,000	45,900
	소비량(톤)	186,056	184,228	184,900
사과	생산량(톤)	1,310,000	1,300,000	1,250,000
	수확면적(ha)	33,600	33,400	33,000
	소비량(톤)	285,500	243,059	240,000
	구분	2017/2018	2018/2019	2019/2020
호두	생산량(톤)	127,000	150,000	155,000
	수확면적(ha)	33,000	37,777	39,036
	소비량(톤)	3,000	3,200	3,300
체리	생산량(톤)	206,741	201,000	231,000
	수확면적(ha)	29,000	32,500	35,500
	소비량(톤)	15,607	15,000	18,500

주: p 추정치.
자료: USDA FAS Fresh Deciduous Fruit Semi-annual Report(2019, p. 5-11), USDA FAS Tree Nuts Annual Report(2019, p. 12), USDA FAS Stone Fruit Annual Report(2019, p. 7).

2.2.3. 육류

칠레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 이동의 차단역할을 하는 아타카마 사막(북부), 안데스 산맥(동부), 파타고니아 및 남극(남부), 태평양(서부) 등 천혜적인 자연조건 덕분에 남미에서 유일하게 가축 질병(구제역 등)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2-17년도 칠레의 축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우유는 2012년 약 265만 톤에서 2017년 199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육류의 경우 2012년까지는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더 많이 생산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달걀 생산량은 2012년 약 20만 8,000톤에서

2017년 23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칠레의 연도별 축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쇠고기	198	206	224	225	215	200
돼지고기	584	550	520	524	508	489
닭고기	571	582	572	604	628	638
우유	2,650	2,149	2,149	2,029	1,991	1,991
달걀	208	208	213	226	226	230

자료: FAOSTAT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10. 30).

칠레의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2년 14.58kg에서 2017년 17.59kg으로 20.6%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2년 19.6kg에서 2015년 17.62kg으로 11.2%가량 하락하였으나 2017년 19.41kg으로 회복하였다. 한편, 가금육 소비량은 2012년 31.7kg에서 2017년 36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칠레는 전통적으로 육류 소비 중 쇠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국가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그로수퍼(AGROSUPER)[10]의 양돈업 진출, 칠레 정부의 돼지고기 산업육성정책,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가격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제는 파라과이에 이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표 7> 칠레의 연도별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kg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쇠고기	14.58	17.13	17.59	17.45	18.88	17.59
돼지고기	19.60	19.69	18.02	17.62	18.26	19.41
가금육	31.7	32.3	32.0	33.9	35.9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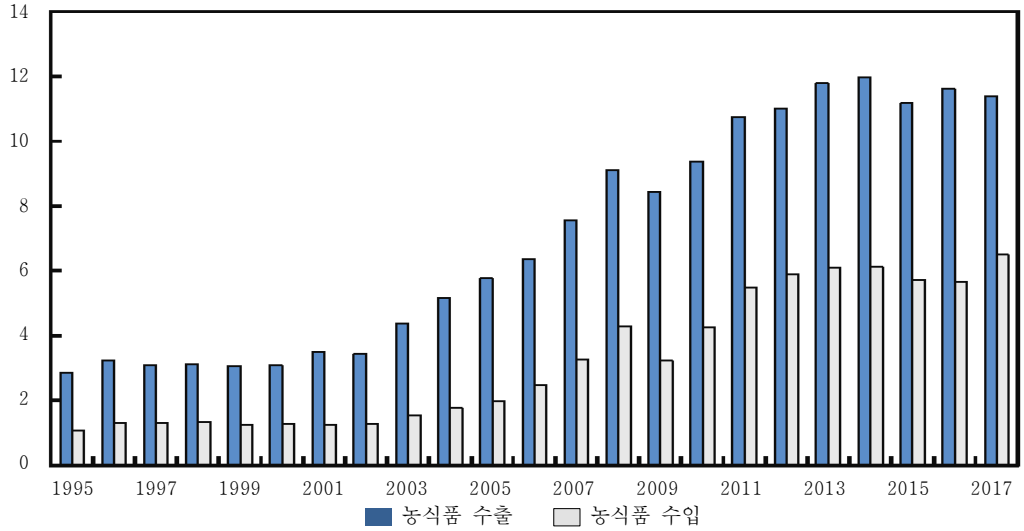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10. 30).

10) 1955년에 설립된 칠레 최대 규모의 육류 생산 및 가공 업체로서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 단계를 수직계열화한 글로벌 식품기업임. 1955년 소규모 양계장으로 시작해 1983년 양돈업에 지출했으며, 현재는 26억 1,700만 달러(2017년 기준)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으로 성장함.

2.3. 무역 현황

칠레는 WTO와 APEC,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7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시작으로 6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칠레는 TPP 협상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 중순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3개 국가와 함께 태평양동맹[11]을 결성하였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FTA를 협상중에 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를 검토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및 FTA를 검토하는 등 자유무역에 있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에 대한 칠레의 긍정적인 입장은 주로 농식품 무역에서 칠레가 순수출국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는 농식품 무역에 있어서 과거부터 수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순수출국이었으며 2017년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5> 칠레 농식품 수출 (1995년~2017년)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2019, p. 172).

11)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공동체로서,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물류 및 인력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촉진하고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2년 6월에 설립됨. 우리나라 또한 2013년 8월 옵서버 국가로 참여함.

2.3.1. 수출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 슬랙, 회(ores, slag, ash)와 구리(copper), 생선, 어류(fish), 과일, 견과류(fruits, nuts) 등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칠레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칠레의 경제는 세계경기 및 국제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예로, 2014년 세계경기 위축 및 국제구리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칠레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정제된 구리와 광석 등의 수출이 급감하여 칠레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적이 있다.

<표 8> 칠레의 10대 수출품목 현황

순위	상대국	수출액(10억 $)	비중(%)
1	광, 슬랙, 회	20.7	27.4
2	구리	18.6	24.6
3	생선, 어류	5.9	7.8
4	과일. 견과류	5.7	7.6
5	펄프	3.6	4.7
6	목재	2.6	3.5
7	무기화합물	2.2	3.0
8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0	2.7
9	귀석, 귀금속	1.6	2.2
10	육류	0.98	1.3

자료: World's Top Exports(검색일: 2019.11.1.).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칠레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부류는 과실류이다. 과실류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2017/18년도 칠레의 전체 포도 수출량은 2016/17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1.4% 증가한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4.7%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칠레의 최대 포도 수출대상국으로 2017/18년에 32만 8,081톤만큼 수출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6/17년 대비 21.4%만큼 증가했는데, 칠레의 과일 수출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마케팅과 홍보 자금 확대 등을 통해 대(對)중국 수출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칠레의 2017/18년도 전체 사과 수출은 2016/17년도 대비 8.7% 증가한 77만 8,941톤을 기록하였다. 콜롬비아는 칠레 사과 수출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며, 미국과 네덜란드, 인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18년도 대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28.9%나 감소하였지만,

네덜란드와 인도에 대한 수출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각각 2만 574톤(53.1%) 및 3만 2,017톤(132.9%) 가량 증가하였다.[12)]

2017/18년도 칠레의 전체 호두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만 3,731톤으로 나타났다. 칠레 정부 및 호두수출협회는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시장 개척과 칠레산 호두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해외수요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터키에 대한 칠레 호두 수출 의존도는 점차 완화되었다.[13)]

중국은 2017/18년도에도 칠레산 체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15만 6,888톤을 수입하였다. 칠레와의 우호적인 경제 관계와 중국의 지속적인 신선 체리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에 칠레의 대중국 체리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칠레산 체리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미국의 칠레산 체리 수입량은 칠레의 전체 체리수출 중 단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9> 칠레의 과실류 수출

단위: 톤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포도	세계	731,156	731,258	0.0
	미국	344,180	328,081	−4.7
	중국	97,334	118,155	21.4
	네덜란드	45,728	43,726	−4.4
	대한민국	34,343	32,212	−6.2
	영국	315,46	32,823	4.0
사과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716,307	778,941	8.7
	콜롬비아	80,598	84,510	4.9
	미국	87,629	62,325	−28.9
	네덜란드	38,719	59,293	53.1
	인도	24,102	56,119	132.9
	에콰도르	49,402	53,241	7.8
호두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116,821	123,731	5.9
	터키	28,756	23,945	−16.8

12)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량을 뜻함.
13) 2017/18년도 대터키 호두수출은 2016/17년도에 비해 16.8% 감소함.

(계속)

	독일	17,636	17,877	1.4
	이탈리아	12,119	10,508	−3.3
	브라질	8,060	8,471	5.1
	아랍에미리트	8,462	7,742	−8.6
체리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95,392	185,134	94.1
	중국	74,820	156,888	19.7
	미국	1,365	7,609	457.4
	대만	2,230	3,370	71.1
	브라질	2,230	3,195	43.3
	홍콩	3,079	2,962	−4.0

자료: USDA FAS Fresh Deciduous Fruit Semi−annual Report(2019, p. 4−9), USDA FAS Tree Nuts Annual Report(2019, p. 10), USDA FAS Stone Fruit Annual Report(2019, p. 5).

2.3.2. 수입

칠레는 국내 밀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는 밀 순수입국이다. 칠레의 밀 수입량은 2016/17년 158만 톤에 이르렀으나 2017/18년에는 11.6% 감소한 약 140만 톤이 수입되었다. 수입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가장 중요한 밀 수입대상국으로 2017/18년에 59만 7,171톤의 밀을 칠레에 수출하였다. 다음으로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2016/17년에는 미국이었으나 대미국 수입량은 9.3% 감소한 반면 대캐나다 수입량은 63.1% 증가하여 2017/18년에는 캐나다로 변경되었다. 칠레 내 밀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칠레의 밀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2017/18년 옥수수 수입량은 양돈 및 양계산업의 수요증가에 기인하여 2016/17년 약 153만 톤에서 20%가량 증가한 183만 톤을 기록하였다. 칠레는 옥수수 벌크를 주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로부터 수입하지만 옥수수글루텐박(corn gluten meal)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아르헨티나의 2017/18년도 옥수수 수출량은 약 169만 톤으로 칠레의 옥수수 수입시장을 92%가량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지만, 파라과이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4.5% 및 27%씩 감소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가격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표 10> 칠레의 곡물 수입

단위: 톤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밀	세계	1,578,819	1,395,350	−11.6
	아르헨티나	920,661	597,171	−35.1
	캐나다	277,607	452,661	63.1
	미국	328,978	298,281	−9.3
	페루	31,318	27,614	−11.8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옥수수	세계	1,528,242	1,833,380	20.0
	아르헨티나	1,370,825	1,687,066	23.1
	파라과이	120,250	114,814	−4.5
	미국	35,221	25,727	−27,0
	우루과이	285	4,707	1551.5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6−10).

칠레의 쇠고기 수입은 대부분 남미공동시장(MERCOSUR)[14] 가입국들로부터 이루어지며, 그중 파라과이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80%(수입액 기준 75%)를 차지한다. 1996년 칠레가 남미공동시장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06년 1월경부터 남미공동시장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11년에는 무관세가 되었다. 칠레는 남미 유일의 가축 질병(구제역 등) 청정국 이미지를 부각하여 위생 기준이 다소 높은 국가에 수출하며, 국내 수요는 남미 인근 국가들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쇠고기를 수입하여 소비한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위생 및 안전성 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돼지고기는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반면, 국내 수요는 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칠레는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 중 42%가량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로부터 수입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돼지고기를 조달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순으로 많이 수입했는데, 브라질로부터는 주로 닭가슴살, 미국으로부터는 주로 닭다리, 아르헨티나로부터는 주로 닭내장을 수입하고 있다.

14) 메르코수르는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에서 체결된 아순시온 협약의 결과로서 설립된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공동체임. 4개의 회원국과 5개의 준회원국, 그리고 1개의 옵서버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1> 칠레의 육류수입 (2016년)

단위: US$, 톤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쇠고기	세계	880,383,877	100%	212,627	100%
	파라과이	350,728,724	40%	77,180	36%
	브라질	305,641,417	35%	93,721	44%
	아르헨티나	143,783,792	16%	25,790	12%
	미국	46,112,212	5%	9,943	5%
	우루과이	28,936,371	3%	5,086	2%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돼지고기	세계	148,922,938	100%	58,779	100%
	브라질	53,557,470	36%	24,690	42%
	미국	47,920,326	32%	16,459	28%
	캐나다	22,227,643	15%	9,797	17%
	폴란드	12,797,815	9%	5,784	10%
	스페인	11,270,523	8%	1,732	3%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닭고기	세계	169,458,717	100%	135,119	100%
	브라질	88,517,917	52%	47,776	35%
	미국	61,412,255	36%	77,249	57%
	아르헨티나	19,453,913	11%	10,046	7%

자료: USDA FAS Chile Bans Brazil Meat and Poultry Imports Report(2019, p. 2-3).

2.4 정책 현황

칠레의 농업정책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생산자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원만 하고 있으며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농업지원에 있어서 직접지불 대부분은 소농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은 토착농민과 소농의 발전을 위한 정책 도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개발청(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DAP)[15]이 앞장서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칠레 농업개발청은 1962년 11월 27일에 농림부 산하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며, 소농의 경제·사회적 능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조직·상업 역량을 향상시켜 소농이 농촌개발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INDAP, 검색일: 2019.12.20.).

2.4.1. 국내정책변화[16)]

칠레의 농업정책은 주로 ① 보다 효율적인 관개시스템의 확대, ②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 ③ 소농과 토착농민(indigenous farmer)의 발전 촉진, ④ 농업분야 혁신 촉진, ⑤ 지속가능한 지원이용체계 구축(특히 토질저하 방지)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칠레 농축산청(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SAG)은 무역을 촉진하고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역과정에서 쓰이는 종이 검사지를 모바일 장비 키트로 대체하고, 단일 검사 저장소(single repository of audits)가 있는 웹/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검역과정 현대화 계획을 세웠다. 농축산청은 또한 검역과 수출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칠레 농업개발청은 더 많은 소농이 국내 및 국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제품의 상업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각기 다른 분야의 45개 기업과 2,630개의 소규모 농가들을 포함한 67개의 생산자협회(productive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칠레는 2018년에 새로운 정부(피녜라 2기 정부)가 집권하면서 아래와 같은 7가지의 2018-22년 농업정책목표를 규정하였다.

1. 농촌생활의 질 향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교육 등 정주 여건의 차이 감소 및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 창출 등을 통한 농촌개발 강화
2. 농가들간의 협력 강화와 기술지원,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결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중소규모 농가 육성
3. 정보 시스템 시장의 투명성과 관리, 불공정 경쟁 억제, 칠레의 국제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국가 이미지 홍보, 식물위생 및 동물위생 보호 등의 향상
4. 기술 및 생산성의 발전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 연구센터 간 효과적인 역할 조정을 통한 국가 수준의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5.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설계와 시행, 평가, 관리 및 투명성 등 일련의 메커니즘 개선 등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의 증대를

16)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201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목표로 한 경영 현대화

6. 천연자원(특히 물과 토양) 이용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개선
7.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 및 농업 생산 촉진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방안 연구

또한 위와 같은 피네라 2기 정부의 농업정책목표들은 ①조직의 현대화, ②농가 간 조직화를 위한 상호 간 연대(associativity), ③천연자원보존을 위한 지속가능성, ④농촌개발 강화 등 4가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상되었다.

2.4.2. 무역정책변화

칠레는 한때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특히 제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수입대체모델 정책(1940-73년)을 취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칠레 경제 전체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에 따라 개방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칠레는 농산물수출모델 정책(1974-2014년)으로 선회하여 자국 농축산물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칠레는 현재 총 3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7개 협정이 시행 중에 있다. 칠레는 관세자유화와 지적재산권, 환경조항(environmental provision)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관한 재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브라질과 FTA를 체결하였다.

3. 시사점

칠레는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19%에 가깝고 수출 흑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유수의 농업 국가 중 하나다. 칠레는 자국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간섭과 지원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기타 다자간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수출확대를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칠레에는

협동조합이 없는 반면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 환경 덕분에 농가 간의 경쟁과 협동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농가들은 각자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수출하며, 중소농가들은 전문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품을 수출한다. 칠레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20년 전만 해도 15만 톤이던 칠레 과일 수출량은 현재 250만 톤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9년 10월 25일 우리나라 정부가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태다. 정부는 국내 농업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영향 발생 시 피해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칠레의 농업 수출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脫개도국 흐름에서 농민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칠레의 호두수출에 있어서 터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최근 일본과 무역분쟁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수출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파프리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수출액 기준 인삼류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량의 99% 가까이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서, 파프리카 수출의 일본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칠레 정부와 호두수출협회의 호두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진오, 김효은. 2018. 「오늘의 세계경제: 칠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 2018. 「칠레 개황」. 외교부.

ODEPA. 2019. 「PANORAMA DE LA AGRICULTURA CHILENA 2019」. ODEPA.

한국농어촌공사. 2015. 「칠레 농업 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9. Country report Chile April 2019」.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AP. (https://www.indap.gob.cl/)(검색일: 2019.12.20.)

USDA FAS. 2019. 「Fresh Deciduous Fruit Semi-annual Report」. USDA FAS.

USDA FAS. 2019. 「Tree Nuts Annual Report」. USDA FAS.

USDA FAS. 2019. 「Stone Fruit Annual Report」. USDA FAS.

USDA FAS. 2019. 「Grain and Feed Annual」. USDA FAS.

USDA FAS. 2017. 「Chile Bans Brazil Meat and Poultry Imports」. USDA FAS.

OECD. 2019.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9」. OECD.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B9%A0%EB%A0%88)(검색일: 2019.10.29.)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l-ko/brd/m_6550/view.do?seq=13215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검색일: 2019.10.29.).

OECD Data (https://data.oecd.org/agroutput/meat-consumption.htm)(검색일: 2019.10.30.)

World Development Indicator(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9.10.28.)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QV)(검색일: 2019.10.30.)

World's Top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chiles-top-10-exports/)(검색일: 2019.11.1.)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Agricultural_land)(검색일: 2019.12.20.)